부와 자가 상봉을 해야만 저승의 공부를 한다

☞ A27면에서 계속

불을 켜시더라도 육의 부모와 법의 부모가 둘 아니게 켜야죠. 내 주인공이 법의 부모니까요. 그래서 불가에서 이렇게 말하죠. "부와 자가 상봉해야만이 저승의 공부를 한다. 보이지 않는 정신계의 공부를 한다."라고요. 부의 손을 잡아야만 자는 바로 무의 세계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봉치 못하면 아니 되는 거죠. 법의 부모란 나를 형성시켰고 또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온 자기의 근본 뿌리인 불성입니다. 불성 자체가 바로 자기의 원래, 법의 부니까요. 육신을 낳아 준 이는 육신의 부모구요. 그것은 내 근본의 법의 부모로부터 그 육의 부모를 빌려서 낳은 거지 내 영원한 그 자체의 불성이 아니었더라면 그 부모도 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유정이 있어야 무종이 있단 얘깁니다. 무종이 있어야 유정을 생산해서 이 공간에 모두 천차만별로 생명들이 살게끔 하는 것이죠. 그 생명들이 살지 않는다면은 무종도 없죠. 그러니까 유정, 무종이 둘이 아니게끔 항상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사월 초파일에 나의 주인공인 법의 부모와 육의 부모를 둘 아니게 촛불을 켜 드린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촛불을 안 켜도 그거는 우주 법계에서 다 알고 있게 됩니다. 마음으로 자기가 알고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알고 그렇게 한 까닭에 현재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알면서도 그렇게 행을 안 한다면 그거는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입니다.

자기 불성이 여러분한테 자기가 진짜로 있다고 말하는 거 봤습니까? 불성이 여여하다고 말하는 거 봤습니까? 불성이 갖추어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 봤습니까? 불성이 만법을 들이고 낸다고 말하는 거 봤습니까? 그것은 불성인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움죽거리고 산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불성을 믿어라 하는 겁니다. 자기 불성이 아니라면 자기 육신도 없을 테니까요. '자기 불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 있는 거니까, 자기가 살아 있다는 것이 바로 자기 불성이 있는 증거라는 걸 알고 그 불성을 믿고 거기다 의지를 하고 즉시 거기다 모든 걸 놔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불성이 있어서 내가 있으니까 나는 불성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러는 반면에 불성은 여여하게 돌아가게 한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겁니까?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면서도 마음에 걸려서 그런 것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게끔 이끌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가 걸려서 헤어나질 못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여여하다고 말은 안 했어도 자기 불성이 있어서 여여하게 살게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면서.

그리고 또 모두가 다,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천차만별의 작용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직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갖추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보면 들이고 내고, 들으면 들이고 또 내고, 항상 이렇게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증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만법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들이고 내는구나! 누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말도 없고 걸림도 없이 그렇게 들이고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몸뚱이 속의 의식들이, 인과성,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이 모두가 얽혀서 마음을 통해서 자꾸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또 욕심을 부리게 되고, 또 그걸 버리지 못하게 되고, 그런 생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그냥 현실에 나오는 거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생각에 의해서 팔자 운명을 버리지 못한다고요. 팔자 운명을 자기가 좌우하는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그 생각 때문에 저렇게 어렵게 산다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가질 게 없어요. 그저 밥 주면 밥 먹고 똥 마려우면 똥 누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그냥 이러면 되지, 그렇게 짜드리 내가 가져야겠다 하는 욕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태산을 벌어다 놨어도 이건 자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저 자기 거라고 하질 말고 주인 거라고 생각해서 다 탁 털어 버리고 그냥 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짜드리 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데 쓰일 일도 없고 꼭 쓸 데다가 써지고 남한테 꾸러 안 가니 얼마나 여여하고 좋은 일인데, 꼭 욕심을 부려서는 흠집을 만들어 가지고 돈이 나가게 하고, 허허허, 돈 잘못 쓰게 하고 자기 몸 상하게 하고 식구들 수대로 애타게 하고, 이게 뭡니까?

부처님이 행하고 나오신 그 과정을 볼 때에 어저께 없는 오늘이 없다고 봅니다. 내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대로 나오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부처님이 나시기 이전에도 지금 마음공부 하시는 여러분과 같이 보살행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는 요다음에 나가서 석가가 되거라." 했다는 사실이죠. 그거는 자기가 해서 자기가 가지고 나온 거지 누가 주고 뺏어 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어진 거죠.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진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거나 왕을 한다면 대통령을 하고도 그 대통령 한 값을 끄트머리 가선 전부 다 물어내게 돼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다 홀딱 게워 놔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를 보면서도 그걸 모르신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촛불 하나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밝힙니다. 사월 초파일이면 마음의 촛불 하나가 현상계에 보이게 불을 밝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탄신을 축하하면서 예의를 지키는 것을 남들한테 보여 주되 '같이 마음을 내자, 마음의 불을 켜자' 하는 뜻에서 이 마음의 불을 켜는 거지 그냥 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이는 데서 켜는 불은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면 꺼지지만 마음의 불을 켜는 것은 어떠한 것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꺼졌다 켜졌다 하는 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살다가 좀 뭐가 안 되면 '아이구, 주인공 믿고 관했는데도 그것도 제대로 안 돼. 뭐 말라빠져 죽은 것이 주인공이야?' 이러거든요. 아니, 그렇게까지 말은 안 하지만 뭐가 안 되면 그냥 울뚝해서 '어이, 주인공을 찾아도 아무 소용 없는데 그까짓 주인공은 찾아서 뭘 해?' 하고 이렇게 뱉어 버리는 마음이 아마 배우는 과정에서 울컥울컥 올라오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허나 우리가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주인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에게 무종이 있었기 때문에 유정이 나왔다, 유정체가 나왔다 이런 소립니다, 유정체. 그러니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으며, 종교라는 이름이 무슨 말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굳이 말을 안 해도,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에이그, 그놈의 거 뭐 말라빠져 죽은 거냐.' 한다면 자기 육체와 더불어 같이 그냥 욕을 해서 던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육체를 떼어 놓고가 아니에요.

>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서 그냥 찰나찰나 듣고 넘어가고**
> **보고 넘어가고, 하고 넘어가고, 만나고 넘어가고, 움죽거리고 넘어가고**
> **이렇게 그냥 걸음을 걸어오면서 그냥 떼어놓을 뿐이지**
> **앞뒤가 없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뭐가 오느냐 하면 '넌 모르니까 한 방 더 맞고 가야 돼.' 하고선 한 방 더 때려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어려운 시련이 닥칩니다. '네가 조금 큰 것 같아서 테스트를 좀 해 보려고 하니까 넌 더 비비 꼬아져서 나가는구나.' 하고 그냥 한 대 때려 주면은 아주 죽겠으니까 그 뒤에서야 겨우 '어이구, 그래도 주인공이구나!' 하는 거죠. 그래도 주인공을 찾아야지 누굴 찾겠습니까?

부처님 형상을 믿겠습니까, 이름을 믿겠습니까? 부처님 마음을 내 마음과 둘 아니게 믿으라고 한 거지, 형상은 언젠가는 부서지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형상이나 내 형상이나 둘이 아니고, 부서지는 건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부서지지 않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둘이 아닌 그 마음이 바로 부서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어떤 때 생각해 보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듣는 사람에 의해서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써 놨거든, 또. 허허허. 그러니까 이거는 편집하는 분들이 이렇게도 해석을 해 놓고 저렇게도 해석을 해 놓고 그러지마는 해석을 어떻게 해 놨든지 그 중심의 뜻만 알면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 나옵니다, 남이 어떻게 해 놨든지.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 계신 한 부처님은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집결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물만생과도 같이 가설이 돼서 돌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조금도 그런 걸 의심치 않으셔야 될 겁니다. 세상을 모두 돌아보세요. 막 멍멍 짖는 개한테도 고깃덩어리 하나 던져 주면 그거 먹기 위해서 안 짖고, 그 뒤에도 그걸 먹은 인연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보면 짖지 않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부처님께서는 둥글어도 맞고 모가나도 맞고, 길어도 맞고 짧아도 맞고, 작아도 맞고 커도 맞고 이러니까 사생자부시죠. 그러니 둘이 아니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틀리다 저게 틀리다 하고 빡빡 우기는 수행자들이나 여러분을 볼 때, 좀 섭섭하겠지만 그건 어딘가가 덜 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허허허.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차원대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하는 가운데서 석존이 전생에 수기 받았듯이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요다음에 만민을 다 이끌어 나가는 어버이가 돼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면 대통령을 해도 손색이 없죠. 대통령을 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나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일체제불의 마음이나 일체 만물의 마음이 모두 동일하게 엮어 주니까 하는 것마다 어렵지 않게 해서, 그 대통령이 있을 때는 국민이 아주 살기가 쉽고 항상 풍년이 들고 항상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덕을 입은 사람이라야만이 이 세상의 어버이가 될 자격이 있다 이런 소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나오실 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7년 5월 4일 법형제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불곡산 대 광 사

주 지 도 웅
신도회장 민기홍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 천태종 분당 대광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 30
TEL. 031-715-3000 | FAX. 031-715-3409
E-MAIL. daegwangsa3@gmail.com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